

대구신문

2006년 09월 08일 004면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대구시의회, '육성조례 개정안' 의결 박부희 의원 "경영 등 더욱 투명 기대"

대구경북의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온 대구경북연구원이 앞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됐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사무 감독을 받는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재술)는 7일 박부희 의원(달서3)이 발의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경연구원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경영평가 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구시장에게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대경연구원은 2005년도에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각각 10억원,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각각 22억원, 10억원을 지원받았다.

박부희 의원은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금까지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며,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연구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